

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 “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고령화 영향으로 이혼 건수·사망자 수도 늘어 인구성장 부정적”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10만 92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혼인도 7만9100건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4월(2만7800명)보다 6.1% 감소했다. 1~4월 출생아 수는 10만92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1만7600명)보다 8400명(7.1%) 줄어들었다.

혼인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4월 2만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2만6000건)보다 2.9% 감소했다. 1~4월 누계로는 7만9100건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8만6800건)보다 8.9% 줄었다.

4월 출생 2만6100명 및 혼인 2만건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

기 시작한 1981년 이래로 가장 적은 기록이다. 1~4월 통계(출생 10만 9200명 및 혼인 7만9100건)도 마찬가지다. 출생과 혼인 통계는 월, 계절별로 선호도가 달라 증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한다.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구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혼인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미혼모 등 혼인 외 출산 비중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친다 대신 혼인 후 출산하는 비중이 90%대 후반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2년 32만7100건(전년 누계 대비 -0.8%), 2013년 32만2800건(-1.3%), 2014년 30만5500

건(-5.4%), 2015년 30만2800건(-0.9%), 2016년 28만6000건(-7.0%), 2017년 26만4500건(-6.1%), 2018년 25만7600건(-2.6%) 등이다. 올해 1~4월 누계로는 감소 폭(8.9%)이 더 커졌다.

이와 관련해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 혼인 건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 인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혼 건수,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 인구가 성장하는 데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 부부는 감소하는 반면 남성이 되는 부부는 계속 증가 중이다. 4월 이혼은 9천500건으로 전년 동월(8700건)보다 9.2% 늘었다. 이혼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8년(전년 누계 대비 2.5%)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4월 누계(3만6500건)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6.1% 증가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0.4%) 감소했다.

통계청은 전국 시, 구정 및 읍, 면 등에 신고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를 기반으로 이 통계를 작성한다. 월별 자료는 지연 및 미신고를 추정 반영하므로 내년에 공표되는 연간 잠정치 및 확정치의 다를 수 있다.

삼성생명, 10년간 지급한 1인 평균 사망보험금 2995만원

“남겨진 가족 미래 필요금액 꼼꼼히 따져봐야”

지난 10년간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구 1년 소비지출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삼성생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 18만587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사망 원인별로 보험금을 살펴 보면, 재해의 경우가 6276만원이었으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2398만원에 불과했다. 질병의 경우 장기간 부병으로 경제적 부담이 지

속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재해 사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금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인생명용연구소 황신정 연구원은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 2290만원은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인 253만원(통계청, 2018년 4분기)을 기준으로 약 1년간 지출할 수 있는 규모인 303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사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신보험을 통한 사망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삼성생명 종신보험 가입 고객의 건당 평균 사망보장금액(사망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081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평균 가구 연소득인 5705만원(2018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약 1.4배에 불과한 수준이다.

황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 납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입금액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망보험 가입시에는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가구 단위 개념의 미래 필요금액을 꼼꼼히 따져 보장금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소형SUV ‘셀토스’ 사전계약

다음달 공식 출시

기아자동차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의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한 사전계약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콘셉트카 ‘SP 시그니처’를 선보였고, 지난 20일 인도에서 셀토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전 세계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정통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셀토스의 외관 디자인은 전장 4375mm, 전폭 1800mm, 전고 1615mm, 휠베이스 2630mm의 볼륨감 있는 차체 크기를 기반으로 강인하고 대담한 외장 이미지를 선보인다.

셀토스는 ▲대담한 통풍도 스타일과 넓은 그릴, 그릴 테두리의 다이어트 패턴으로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범퍼 캐리터라인이 강조된 전면부 ▲볼륨감있는 펜더를 기반으로 정교한 리어 콕비네이션 램프 듀얼 타입 데코 가니쉬를 적용해 넓고 견고한 후면부를 자랑한다.

기아차는 셀토스의 내장을 시트 재질이나 소재 등의 차별화에 중점을 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과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절제된 젊음 고급스러움’을 구현해냈다.

▲각 구성품의 경계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시리스(Seamless) 디자인의 10.25in 내비게이션과 공조 컨트롤러 ▲매끄럽게 구현된 조작 버튼 ▲역동적 감성을 구현한 센터 콘솔 그립바 ▲센터 가니쉬에서 사이드 에어벤트로 이어지는 손으로 다듬어 완성한 듯한 정교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등급 최고 수준의 주행성능을 자랑하는 기아차 셀토스는 ▲1.6터보 가솔린 ▲1.6 디젤 두 가지 엔진으로 운영된다.

뉴스스

전국 상조업체 92개 가입자수는 증가세

2012년 기점 해마다 감소

국내 상조업체가 지속 감소세를 보인 끝에 두 자릿수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대형 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로 지난해 하반기(146개)에서 54개가 줄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상조업체 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부터 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15억원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자진 폐업 혹은 등록취소 업체들이 늘고 이는 대형 업체로의 흡수합병으로 이어졌다.

상조업체는 줄어들었지만 가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1만명(3.9%)이 늘었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었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들 중 23.3%였다. 이들은 전체 가입자의 86%를 회원으로 두고 있었다.

반면 가입자가 1000명이 되지 않는 업체는 17개(18.9%)였는데, 이들의 회원수는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했다.

선수금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상위 업체들에 쏠려 있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21개 업체의 선수금은 4조364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2.7%에 달했다.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17개 업체들의 선수금은 전체의 0.2%였다.

뉴스스

여름 면전쟁 개막...비빔면 등 대표 여름면에 보양식면도



식품·유통업계의 여름 면 전쟁이 시작됐다. 비빔냉면, 동치미막국수 등 대표 ‘여름면’은 물론 보양식과 결합한 제품 등 울 여름에는 제품이 보다 다양화되는 추세다.

샘표는 국수 명가답게 여름한정

국수 5종을 동시에 내놨다. 울 여름에 새롭게 선보이는 ‘샘표 국수’는 동치미물냉면, 비빔냉면, 메밀소바, 동치미막국수, 비빔막국수다.

샘표식품은 보양식 라면 ‘삼계탕면’을 출시했다. 이월치열로 무너위를 극복하는 전통 보양식 삼계탕을 라면과 결합했다. 이 제품은 오는 8월까지 생산된다.

CI제일제당은 HMR(가정간편식)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회사는 ‘동치미 물냉면’ ‘고소한 콩국수’ 2종을 내놓으며 간편한 요리 과정과 일반 식당 냉면 못지 않은 품질을 내세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라면시장 강자 농심은 도토리졸면, 냉라면, 초장비빔면 등 하절기면 신제품 3종을 선보이며 여름 면시장 정조준에 나섰다. 오뚜기도 일찌감치 4월에 신제품 ‘미역초 비빔면’과 ‘와사비 진짜 졸면’을 내놨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